

순천 청암대 이사회, 일방적 '총장 사퇴 처리' 물의

운영규칙 무시 청암대 · 청암고 학사운영 차질
교육부 "이사회 회의록 제출 않아 인정 어려워"

순천 청암대학이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규칙을 무시하고 총장을 사퇴 처리해 물의를 빚고 있다. 감독기관인 교육부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사태수습에 나서지 않아 재단 소속 학교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암대는 지난 3월 6억5000만원 배임죄로 출소한 강명운 전 총장(72)의 아들 강병현(39) 이사장이 이사회의 정식 의결 없이 서형원 총장을 사퇴 처리했다. 이와관련 교육부는 총장 면직과

관련, 학교법인이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증빙 자료가 부족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총장을 임용·해임할 때 학교법인 이사회를 통과하도록 되어있다. 서 총장은 위법적인 면직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다. 청암대는 또 이사회 개최를 위한 이사 자격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청암학원 이사 정수는 8명이지만 현재 재직 이사는 5명이다.

이들 모두 참석해야 회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재직 이사 중 한명인 A씨의 이사 자격을 놓고 재단측과 이사들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A씨는 강 전총장이 복역 후 대학측에 부당한 간섭을 하자 지난 5월 사표를 제출했다가 철회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청암대는 A 이사 대신 재단측에 우호적인 K 전 이사를 참석시키려다 이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K 전 이사는 지난 1월 9일 임기가 만료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7월 재단측에 '이사회 운영 관련 유의사항 등 알림'이란 공문을 통해 이사 자격과 관련해 "이사 정족수·의결정족수를 충족할 때까지 이사회 개최일로부터 역산해 가장 가까운

시점에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이사만 긴급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직전 이사인 A씨가 이사의 자격을 갖는 데도 재단측은 이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청암학원은 지난 11일에도 이사회를 개최하려다 또다시 참석이사의 자격문제를 놓고 재단측과 이사들간의 의견 충돌로 이사회를 열지 못했다. 7월 29일, 8월 28일, 9월 10일에 이어 4차례 열린 이사회 모두 동일한 이유인 이사 참가 문제를 되풀이 하고 있다. 이같은 사태로 재단 소속의 청암고와 청암대가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청암고의 학과 개편, 후임교장 선임, 학급감축 문제를 비롯, 청암



순천 청암대 본관

대 교수들의 명예퇴직, 대학 교원 재임용 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긴급처리권과 관련해 교육부 지침과 유의사항을 보냈는데 원칙에 따르지 않고 이사들간 다툼을 벌여 난감하다"며 "청암대 문제는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전남도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율 11.1%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 전남도가 부과한 변상금 3억6700만원 중 11.1%만 징수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

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4~2018) 17개 시·도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 부과한 변상금에 대한 징수율은 54.2%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7개 시·도가 부과한 변상금은 307억 1100여만원이지만 징수금액은 166억 3500여만원으로 징수율 54.2%

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징수율이 가장 낮은 광역단체는 11.1%의 전남이었다. 전남은 3억67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해 4000여만원을 징수했다. 광주는 1억384만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해 5611만원을 징수, 징수율 41.9%를 기록했다. 이는 전남과 인천에 이어 세번째로 낮은 징수율이다.

허성은 기자

광주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1년새 27% 올랐다

9월 m² 평균 분양가 372만원...전국 1위

광주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최근 1년 사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보증사업장 정보를 집계·분석한 결과, 광주는 올 9월말 기준 m²당 평균 분양가격이 372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평균 분양가격 m²당 293만1000원과 비교하면 m²당 78

만9000원이 올랐다. 1년만에 광주지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26.92%로 상승한 것으로,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 기간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은 8.63%였다. 광주에 이어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인천(17.89%), 대구(16.54%), 제주(16.06%), 서울(15.61%) 등의 순이었다.

대도시 가운데 광주의 9월 현재 m²당 분양가격은 대전(344만2000원), 세종(345만8000원), 울산(272만5000원)보다 높았다. 전남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m²)은 9월 248만1000원으로 지난해 9월 235만2000원보다 5.46% 상승했다. 하지만 올 8월(평균 분양가격 235만 2000원)에 비해서는 5.85%가 올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서은홍 기자



"국화너무 예뵤요"

2019 국향대전 개막을 이틀 앞둔 16일 전남 함평군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소풍 온 어린이들이 독립문 등 국화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2019 국향대전은 임시정부 100년! 백만송이 함평국화와 함께 라는 주제로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7일간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열린다.

'심의위원 명단 유출' 광주 광산구 금고 선정에 국민은행만 참여

경쟁자 없어 제공모

광주 광산구가 심의위원 명단 유출로 논란을 빚은 1급고 운영기관 재선정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1차 제공모에서 경쟁자가 없어 재접수하기로 했다. 16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1급고 운영기관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KB국민은행만 단독 접수했다.

지난달 10일 열린 설명회에는 지난해 국민은행과 경쟁했던 농협·광주은행도 참석했지만 공모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광산구는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유치하려는 은행 간 지나친 경쟁을 막고자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평가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공모에서 국민은행만 단독으로 입찰, 경쟁자가 없어 구는 2차

공모에 들어가기로 했다. 오는 22일과 23일 이틀간 구 1급고 운영기관 제안서를 재접수한다. 1차 공모에서는 2곳 이상의 경쟁업체가 공모해야 경쟁심사가 가능하다. 만약 제공모에서도 국민은행이 단독으로 신청하면 제1급고 운영기관은 경쟁심사 없이 국민은행으로 선정된다.

임형택 기자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Gwangju Design Biennale
2019

사람 사는 세상, 따뜻하게

humanity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GWANGJU DESIGN BIENNALE
9.7-10.31

행사장소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재)광주디자인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은암미술관

주최 광주광역시
주관 광주디자인센터